

● **연중 제 11주간 강론**

태초에 에덴동산에는 모든 생명체가 암수 짝이 있었으나, 남자인 아담(사람)만이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 옆에 아리따운 여자가 서있게 됩니다. 하와가 탄생된 것이지요. 그때 아담이 기쁜 나머지 목청껏 부르짖은 탄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 23)

아마도 아담의 탄성 뒤에 또 다른 말을 덧붙이라면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가 제격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였던 아담은 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랑하는 하와가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느님께서 아시고는 분명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창세 3, 11)

이쯤 되면 사내대장부가 나무숲 사이에서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제가 따 먹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고발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인 원죄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따먹은 뒤의 잘못된 처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던 죄, 자신의 죄를 남에게 덮으려 하였던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끗한 척,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이 살면서 남을 단죄하는 성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은 단연코 다윗 왕입니다. 그 위대한 임금의 더러운 치부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돌도 없는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밋세바와 간통한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 다윗이 위대한 까닭은 아담과 같은 치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회개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2사무 12, 13)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루카 7, 47)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성인 성녀나 위인들까지도 용서받지 않고 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용서 받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도 용서하며 살았기에 그 위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의 단점을 살펴보면 내 자신 안에는 더 추악한 같은 단점과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은 눈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가 예전에 지었던 수많은 잘못에서 용서받은 기쁨과 회개의 끊임없는 눈물에서 비로소 신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자신 스스로 볼 수 없으므로 이웃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그 분께서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간절한 통회가 있을 때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감격의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춘천교구 계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성심이신 예수님께 / 이해인

겸손과 온유의
성심(聖心)이신 예수님

당신은 항상
저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셨지요?

사랑의 가시에 깊이 찢리신
당신 마음에 깊이 들어간
저의 기도는
오직 사랑 때문에
피 흘려도 좋은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납니다

초록의 황홀함에
취해 있던 6월의 숲에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죄가 많지만
갈림 없는 첫 마음을
순결한 첫사랑으로
당신께 봉헌하는 오늘

당신이 쏟아 부은 사랑이 넘쳐
제 마음은 온통 초록빛 바다
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식사 전교 후
- ▶ 바느질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율뜨레아 : 매월 첫주일 식사 전교 후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굿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굿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블목하여 결단 사람들도 부르시어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은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세번)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오늘 야외미사 안내

Father's Day를 맞이하여 가족공동체 안에서
가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모쪼록 즐겁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 ▶ **일정** : 1:00- 사목위원& 각 구역장 집합
(장내정리및 행사준비)
- 2:00- 야외미사 집전
- 3:00- 식사
- 4:00- 체육대회:
족구- 남자팀(홍백전)-경기: 3 세트
- 피구- 여자팀(홍백전)-이하 상기동일
- 5:30- 보물찾기(대상: 공소 교우 전체)
- 6:30- 마침기도와 신부님 강복(폐회)

홍팀: 1, 3, 5구역(붉은색 T셔츠 착용 필수) 10명
백팀: 2, 4, 6구역(흰색 T셔츠 착용 필수) 10명

◎ 사목회의 장소 변경(추후 공지)

마지막 주일 정기 사목회의가 현지성당의 친교실
사용문제로 부득이 장소가 변경됩니다. 변경된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하겠습니다

◎ 성서 100주간 시행

구약과 신약 성서를 3년에 걸쳐 공부하고
묵상하는 참신앙인의 샘터입니다. 5월 중에 각
구역별 첫모임을 통해 참가자가 확정되어
예정대로 6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2, 5, 6 구역-김영삼 시몬 형제 (15명)
- ▶ 3, 4 구역-장용경 루시아 자매 (8명)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 ▶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
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소속본당,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뇌기도회 :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 ▶ 장소 : 장명길 형제 자택

◎ 6월 구역모임 (공소 사이트 각 구역 참조)

- ▶ 1구역: 6월22일 오후6시 한택중형제 자택
- ▶ 3구역: 6월23일 오후5시 이은희자매 자택
- ▶ 4구역: 6월30일 오후7시 안세영형제 자택
- ▶ 5구역: 6월22일 오후7시 신상우형제 자택
- ▶ 6구역: 6월22일 오후7시 남상목형제 자택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 ▶ 6월21일(목) 낮 12시,성A.곤자가수도자기념일
- ▶ 6월21일(목) 오후 8시,성A.곤자가수도자기념일

◎온타리오 한인 본당 합동 골프대회

날짜 : 2007년 6월 19일 12:00 Shotgun

장소 : Highlands Golf Club(지난해와 동일장소)

◎청소년 하계 여름캠프

- 일시 : 6월30일(토) ~ 7월2일(월)
- 장소 : Orangeville, Sagrada Familia Centre
- 대상 : Gr 7~ 대학생 (9월 기준)
- 비용 : 1인 \$70
- 접수마감 : 6월 3일 선착순 50명 (공소 포함)
- 접수 : 청소년 담당 선생님

◎성령세미나 (장소: 토론토한맘성당)

6월 27일-29일 저녁 6:00 - 10:00

6월 30일 (토) 오전 9:30 - 오후 9:00

◎ 기도모임 안내

- ▶ 사랑하올 어머니 Pr. : 매주 화 오후 19:00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목 낮 11:00
- ▶ 은총의 모후 Pr. : 매주 목 낮 11:00
- ▶ 사도들의 모후 Pr. : 매주 목 낮 12:30
- ▶ 셋 별 Pr. : 매주 목 오후 19:00

▶바 뇌 성 모 기도회 : 1, 3 토 낮 11:11

미 사 전례

해 설 | 김직현 차주 해설 이민

화 답 송 | 주여 내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437)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봉 헌 (210) 나의 생명을 드리니
성 체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되 장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독 서

6월 17일 김영삼 김정현
6월 24일 이동기 이정숙
7월 1일 박용대 박명옥

봉 헌

6월 17일 이명희 이상희
6월 24일 김영삼 김정현
7월 1일 이동기 이정숙

친 교

6월 17일 장미팀 6월 24일 백합팀
7월 1일 신비팀 7월 8일 빛팀

2007-24

2007. 6. 17.

연중 제 11 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2007년 6월 10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20.20

성전건립: \$ 90.00

Total: \$ 710.20